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독립성 강화 회의 결과 알림

1. 철도안전정책과-3430(2024.6.5.) 관련입니다.
2. 「철도안전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독립성 강화 논의를 위한 회의(6.21)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철도운영자등은 이를 검토하여 자체 운행안전관리자 업무 독립성 확보 방안 수립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독립성 강화 관련 회의 결과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한국철도공사사장, 부산교통공사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서울교통공사사장, 대구교통공사사장, 대전교통공사사장, 인천교통공사사장, 광주교통공사사장, 남양주도시공사사장, 공항철도(주) 대표이사, 신분당선(주), 경기철도주식회사, 새서울철도 주식회사, 가야철도(주), 전라선철도(주), 주식회사 에스알,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서울시메트로9호선(대표계정), 용인경량전철(주) 대표이사,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 이레일(주) 대표이사, 의정부경량전철(주), 김포골드라인운영(주)대표이사, 남서울경전철(주), 서부광역철도(주), (사)한국철도안전기술협회,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주무관

양영훈

행정사무관

박영석

철도안전정책 전결 2024. 6. 27.

과장

조성균

협조자

시행 철도안전정책과-3965

(2024. 6. 27.)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5
동 566호)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4629

팩스번호 044-201-5594

/ ygh4757@molit.go.kr

/ 비공개(5)

철도 운행안전관리자 독립성 강화 관련 회의 결과

< '24. 6. 26.(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

□ 추진 배경

- (특별 점검) '23.末 철도 운행안전관리자 관련 민원 多, 배치개소가 많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국가철도공단 특별 점검(1.15~1.19)
 - (점검 결과) 운행안전관리자가 시공사 소속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 고용관계에 의한 압박으로 안전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던 사례 有
- ☞ 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
- * (일시/참석) '24.6.21(금), 철도안전정책과장, 운전기술협회 및 13개 철도운영사

□ 회의 결과: 운행안전관리자 독립성 강화 방안

- (1안 감리소속 배치) 안전업무 감독자로서 운행안전관리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건설사업관리) 소속으로 배치 (코레일, '21.2~)
- (2안 감리의 감독강화) 운행안전관리자(시공사 소속) 교체시 그 적정성을 감리(또는 감독직원)가 검토하고, 부당한 지시에 대한 신고 절차* 마련
- * 운행안전관리자 → 운영사 공사감독 직원 또는 감리(건설사업관리)
- (고용관계 개선) 시공사가 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시 시공사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인력을 고용하여 배치하도록 개선 (국가철도공단 안)



- ☞ 1·2안 모두 시공사로부터 운행안전관리자의 안전 업무 수행 및 고용관계를 좀 더 보호하여 업무 독립성 개선 가능

□ 향후 계획

- 철도운영사는 ①감리소속 배치, ②감리의 감독강화, 두 방안을 검토하여, 자체 운행안전관리자 업무 독립성 확보 방안 수립('24.6~)